

# 코로나19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분석

## 개신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덕 · 구현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들어가며

지난 2020년 2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한 이래 개신교 교회들은 언론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대면예배와 기타 소모임을 강행하는 교회들은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었고, 이들이 수입과 조직의 유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긴다는 논지의 기사들이 이어졌다.<sup>1</sup> 특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 영생교 승리재단(이하 영생교), 사랑제일교회(예장대신 복원) 전광훈 목사가 이끈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종교, 특히 개신교회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

\* 책임연구: 김상덕 연구실장(sangduk.kim@jpic.org), 공동연구: 구현우 연구원(koo@jpic.org).

<sup>1</sup> 임용우, “코로나19 주범 인식에 커지는 종교 혐오,” <대전일보> (2020.7.19.) [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31658](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31658); 조현, “‘신도 현금 사수’ 개신교회가 코로나 전파 진원지 된 이유,” <한겨레> (2020.8.19.) [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58409.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58409.html); 허단비, “‘잠잠해지면 또 교회’... 왜 그곳에 집단감염 잦나,” <뉴스1> (2021.1.31.) <https://www.news1.kr/articles/?4197580>; 한승훈, “왜 바이러스는 교회에서 퍼지는가,” <한겨레> (2021.2.15.)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2994.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2994.html).

한국교회의 반응은 다양했다. 상당수 교단과 교회가 신천지와 영생교를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라 규정하며 그들과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을 거부했고, 일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세력의 정치적 극우성을 들어 그들도 ‘정상적’ 혹은 ‘건강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를 향한 비판을 회피했다.<sup>2</sup> 일각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성적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불신이 교계 내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했다.<sup>3</sup>

분석 결과에 앞서 전체 집단감염 사례 중 종교시설 집단감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2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1년간 특징 (2020.1.20.부터 2021.1.19.까지)”<sup>4</sup>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발생 확진자 수는 총 33,223명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3,115명<sup>5</sup>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단감염과 관련된 감염자 비율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이 집단감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연해 보인다. 개인 간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예방하기란 어렵지만, 집단감염은 전파력도 높은 반면 예방 효과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주요 집단감염 사례들 가운데 종교 관련 확진자 수가 11,005명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집단감염의 33.12%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집단감염 사례 중 유형별 집단발생 분포는 <표1>과 같다.

---

<sup>2</sup> 이희용, “신천지는 왜 이단으로 지목받았나...사이비 논쟁의 역사,” <연합뉴스> (2020.3.24.) [www.yna.co.kr/view/AKR20200303179700371](http://www.yna.co.kr/view/AKR20200303179700371); 장중희, “코로나 재확산에 뒤틀리는 개신교 인식 <매일경제> (2020.8.20.) [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55734](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55734); 신상목, “집단 감염 터진 영생교, 어떤 곳인가,” <국민일보> (2021.2.20.)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22927](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22927).

<sup>3</sup> 임종명, “497개 교회 ‘예배 중단 조치는 위한’ ... 행정소송 추진” <뉴시스> (2021.1.6.) [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6190&clD=10701&plD=10700](http://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6190&clD=10701&plD=10700); 김성현, “목회자 모임 예자연 ‘대면 예배금지는 헌법 위반,’” <MBC 뉴스> (2021.2.17.)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1373\\_34873.html](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1373_34873.html).

<sup>4</sup>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 정보분석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1년간 특징 (2020.1.20.부터 2021.1.19.까지),” 「주간 건강과 질병」제14권 제9호(2021.2.25.) (청주: 질병관리청, 2021), 482-495.

<sup>5</sup> 2021.1.19. 기준.

구분	주요 집단 전체	종교 관련	의료 및 요양기관 관련	직장 관련
확진자수(%)	33,223 (100)	11,005 (33.12)	6,900 (20.77)	3,817 (11.49)
가족 및 지인모임 관련	체육 및 교육시설 관련	교정시설 및 군부대 관련	음식점 및 카페 관련	기 타
3,470 (10.44)	2,974 (8.95)	1,653 (4.98)	714 (2.15)	3,021 (9.09)

〈표1〉 집단감염 사례 중 유형별 주요 집단발생 분포

위 통계와 관련하여 소위 ‘교회발 집단감염’의 사례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위 보고서에서 종교 관련 집단감염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2020년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이끌었던 신천지 관련 확진자 수(5,214명)<sup>6</sup>를 포함하고있어 이를 제외한 종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5,791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신천지 관련 확진자수를 제외하더라도 집단감염 사례 중 17.43%가 종교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개인 및 집단감염의 전체 확진자 수(73,115명)로 나누면 종교 관련 확진자 수는 7.92%로 줄어든다. 일각에서 ‘교회발 집단감염’이 실제 사례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 사회로부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알뜰한 자기변호로 보일 위험이 있다. 교회를 병원이나 요양원 등과의 비교 또한 무의미하다. 비록 수치 면에서는 더 낮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시설은 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종교(교회)를 의료시설이나 직장, 학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sup>7</sup>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은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를 느꼈다. 이번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제공한 “주요 종교 집단감염 현황

<sup>6</sup>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 전략기획팀 및 역학조사팀, “2021년 1월 21일 보도참고자료,” 6; “2021년 3월 25일 보도참고자료,” 23.

<sup>7</sup> 한편 해당기간 질병관리청의 일일브리핑에 따르면 2021년 2월까지 7.92%에 달했던 전체 확진자 대비 신천지, 영생교 제외 종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비율은 2021년 1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사례들에서는 3.88%를 기록해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교기관들 특히 개신교회가 코로나19 유행 초반에 얻은 사회적 낙인을 불식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2020.5.1.~2021.2.24.)”<sup>8</sup>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여기에 언론 보도와 해당 종교 기관들의 자료들을 취합하였다. 이를 토대로 종교시설 집단사례 중 주로 개신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교단, 감염자 수, 감염 시기, 교회 규모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분석결과

### 3대 주요 종교별 비교

개신교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기에 앞서 주요 종교 전체 통계를 소개하자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3대 주요 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 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총 54 건이며, 이 중 천주교 관련 2건, 불교 0건, 개신교는 51건, 기타(신천지) 1건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집단감염 사례 (건)	집단감염자 수 (명)
개신교(교회)	51	2,953
천주교(성당)	2	19
불교(법당)	0	0
기타종교(신천지)	1	4,714
총계	54	7,866

〈표 2〉 3대 주요 종교별 집단감염 사례 및 감염자 수

해당 조사 기간 동안 총 감염자 수는 7,86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천지발 감염자 수가 4,714명으로 가장 많고, 개신교가 2,953명으로 그 뒤를 따른다. 신천지와 비교는 그 특수성 등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대신 본 보고서에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의 구체적인 특징 등을 살피기로 한다.

<sup>8</sup> 이 자료는 기사연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실을 통하여 요청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에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로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통계임을 밝힌다.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권재우 주무관(043-719-7973), 이상은 연구관(7977), 박영준 과장(7950).

## 개신교 집단감염: 지역별 통계

먼저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 중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확인 된 교회 중 서울/경기 지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6건으로 뒤를 이어, 수도권 지역에 발생 사례가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경기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충청
집단감염 사례 (건)	19	6	3	4	4	2	3	1

〈표3〉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 지역별 분포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있었던 경북 지역에서는 3건으로 여타 다른 지방과 비슷하게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이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과 이 시기까지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연결지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개신교 집단감염: 교단별 통계

다음은 교단별 통계이다. 이번 조사에서 집단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교단은 예장합동이 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장통합과 기하성(순복음)이 각 4건, 기감과 예장백석에서 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하성	기감	기침	예장백석	예성	기성
13	4	4	3	3	3	1	1
나사렛	예장대신	예장고신	기장	기타 교단			미확인
1	1	0	0	12 (장로교 계통 10, 기타 2)			5

〈표4〉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 교단별 분포

특기할 점으로 기타 교단 중 예수교 장로회 명칭을 사용하는 교회가 10곳, 그리고 교단을 특정할 수 없는 단체가 5곳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은 한국 주요 교단에 속하지 않은 자생적인 군소 교단 소속일 가능성이 높고, 교회 규모도 작으며, 한국 교회 연합기관과의 관계 및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사주의적 (기도원, 방언, 신유집회 등) 신앙 성향을 가졌거나 표방하는 교회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만 14 곳으로 교단별 구분보다 더 높은 발생 경향을 보였다.

### 개신교 집단감염: 감염 규모별 통계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관에서 최소 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 사례로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집계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의 사례 중 개신교 집단감염자 합계는 2,953명이며, 이 중 감염자 수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9곳, 11-20명은 15곳, 20-49명은 20곳, 50명 이상의 사례는 7곳으로 조사되었다.

	집단감염자 10명 이하	집단감염자 11-19명	집단감염자 20-49명	집단감염자 50명 이상
집단감염 사례 (건)	9	15	20	7

〈표5〉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 감염 규모별 분포

위 결과에서 IEM 국제학교와 같은 사례는 질병관리청의 종교시설발 집단감염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로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그 구분 또한 모호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종교 집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제외가 되는 사례들과 종교법인이 세운 단체이지만 종교시설로 등록되지 않아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그 예시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분석과 이에 따른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 언론에서 종교시설 집단감염이라고 보도된 사례가 모두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사례가 아닐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개신교 집단감염의

수가 종교시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종교단체 모두를 포함시키거나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를 다 모은다면 보다 많은 집단 감염 사례들이 집계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듯 개신교 집단감염 발생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개신교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 개신교 집단감염: 발생 시기별 통계

다음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7월까지의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는 5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8월이 되자 17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7	2020.8	2020.9	2020.10	2020.11	2020.12	2021.1	2021.2
집단감염 사례 (건)	5	17	5	2	2	7	2	4

<표6>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 교단별 분포

개신교 집단감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것이다. 초기에는 방역 지침이나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해나 준비 등이 부족했을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대면예배를 드리거나 이를 무시한 채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배 및 모임의 방식, 교회 크기나 참석인원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표 6>에서 보듯이 시기별 통계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신교 집단감염이 2020년 8월과 9월에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8월에만 17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9월에도 5곳으로, 두 달 동안에만 22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집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신교 집단감염: 교회 규모별 통계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의 규모별 현황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지점이다. 정확한 교인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교회들을 편의상 소형(출석 교인 100명 미만), 중소형(100-500명), 중형(500-1,000명), 대형(1,000명 초과) 네 분류로 나누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 인 수	100명 미만	100-500명	500-1,000명	1,000명 초과	미확인
감염 사례 (건)	20	10	1	8	12
감염자 수 (명)	437	223	33	1,906	354
사례당 평균 감염자수 (명) <sup>1</sup>	21.85	22.3	33	238.25	29.5

<표 7>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 교회 규모별 분포

조사 결과,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교회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형 교회에서는 10건, 중형교회에서는 1건, 대형교회에서는 8건으로 조사되었다. 일차적으로 대형교회보다는 소형교회나 중형 규모의 교회에서 집단감염의 발생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행정체계, 비대면 예배를 위한 기술적 보유 여부, 목회자 및 교인들의 문제 인식, 신앙 형태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교인수가 3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sup>9</sup>

반면 집단감염 건수가 아니라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염자수 기준,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자 수는 총 1,906명으로, 중소형 교회 집단감염자수를 합친 것보다 높게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를 사례 당 평균 감염자수로 환산하면, 대형교회는 238명, 중형교회 33명,

<sup>9</sup> 예장 통합의 경우, 100명 이하의 교회가 약 67%, 30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 85.8%를 차지한다. 이수진, “50명 이하 교회가 절반, 약해지는 교단 허리,” <한국기독교공보> (2020.9.14.) <http://pckworld.com/article.php?aid=8645013968>.

중소형교회 22명, 소형교회 21명으로 순서가 뒤집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감염의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 할 때, 대형교회의 철저한 방역과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일부 교회에서 제기하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회가능 인원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주장에 대해, 이는 대규모 집단감염으로의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응할 수 있다.

## 연구조사 분석 및 제안

이번 조사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불분명한 기준에 대하여:** 기사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 기간 내에 언론에 노출된 소위 “교회발 집단감염”의 사례들 중에는 위 통계 자료에는 누락되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우가 총 23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이를 보도한 언론들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질병관리청의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모호한 기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두고 여러 입장과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해결 중심의 접근 및 보도의 필요성:**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발생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연구는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들이 교단, 시기, 규모, 신앙적 성향 등의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소위 ‘교회발 집단감염’이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한 경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발적 사고에 의해 발생, 사후처리 최선 다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와 의도적으로 방역에 비협조적이거나 사후에도 비협조적 자세 유지하는 교회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반면, 교회의 규모나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사례들이나 신앙적 양태의 차이로 인한 발생의 경우에도 각각의 적절한 도움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불필요한 기독교 혐오 감정 우려: 다양하고 복잡한 기독교 집단감염의 사례들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지 않고, 집단감염의 발생건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한 개신교 집단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나 사회 갈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면적인 취지의 언론 보도나 입장 전개는 일부 개신교회의 또 다른 반감으로 이어져 방역 위기관리 및 현 정부에 반작용적 에너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이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방역위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범적 사례들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주요 교단 및 연합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현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들을 개교회의 일탈이나 사고 정도로 보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개신교의 집단감염 사례는 타종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더욱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별히 각 교단 및 연합기관들은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를 진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교육, 지원, 치리, 홍보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